



The 40th Anniversary Bulletin of Korean Diabetes Association

40주년 기념신문

발행처 :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사업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빌딩 10층 1010호 우:121-706

TEL. 02) 714-1968 / FAX. 02) 714-9084 발행인 : 최동섭 편집인 : 유형준

5호 2008년 7월
www.diabetes.or.kr



40주년 기념인터뷰 ⑤ 15~16대 회장 신순현 교수

세계로의 힘찬 도약 IDF 유치의 꿈을 품다

"40주년 기념 원로교수 인터뷰"는 학회 역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원로회원의 고견을 듣는 자리로, 그 다섯 번째 인물은 1995년~1999년 제 15대, 16대 회장직을 역임한 신순현 교수이다. 신순현 교수는 현재 중앙의대 내분비내과에 재직하고 있다. 인터뷰는 4월 16일(수) 오후 2시 중앙대 용산병원 신순현 교수 연구실에서 열렸으며, 진행은 유형준 40주년 기념사업단 실무추진위원장이 맡았다. <편집자>

학회 사무국에 있으면 신순현 교수의 전화를 일주일에 몇 차례 받게 된다. 40년사 발간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학회 행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사업 개진을 비롯해 좋은 의견들을 제안하는 전화들이다. 그의 끊임없는 학회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총무 4년, 부회장 4년, 회장 4년 총 12년을 학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당뇨병학회에 헌신한 신순현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2면으로 이어짐>

40주년 신문은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1

15~16대 회장
신순현 교수
인터뷰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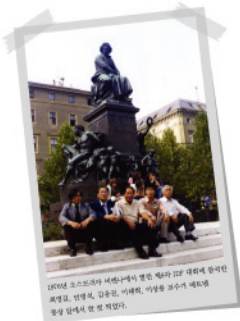
40주년 기념우표
기부금모금현황



역사의 현장
제1회 당뇨병주간 개최

04

사진으로 보는
당뇨병학회 7080



세계로의 힘찬 도약 IDF 유치의 꿈을 품다

〈1면에서 이어짐〉

신순현(이하 신) : 사람도 40세면 중년이 시작되는 것처럼 학회도 초창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날이 발전해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유형준(이하 유) : 선생님께서 이룩하신 여러 업적들 중 각별히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신 : 제가 회장을 맡았던 시기가 당뇨병학회의 초창기를 지나서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체제 정비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습니다.

결과가 나중에 안 좋았지만 세계당뇨병연맹(IDF) 유치준비위원회를 발족했던 것이 우리 당뇨병학회가 도약하는 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비도 많이 쓰고 훌륭한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등 유치에 갖은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 결과가 실망스러워 아쉬움이 크게 남아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IDF 대회를 꼭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학회가 또 한번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 선생님께서 당뇨병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자리에서 설파하셨던 그 울림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당뇨병교육에 특별한 비중을 두셨던 까닭과 벌이셨던 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신 :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는 계획들을 추진했죠.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의 경우 이태희 전임 회장님을 도와 함께 준비했구요.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 당뇨병 교육자 자격시험을 시작하고 당뇨병환자를 위한 책, 당뇨병 교육자를 위한 책을 발간하는 등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 : 글로벌한 안목을 가지시고 세계적인 학자들과 교류하시면서 끊임없이 후학들을 독려해 오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가요.

신 : 1989년에 제주도에서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을 했어요. 그전에는 항상 서울에서 하던 것을 일종의 모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주도로 갔어요. 물론 학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신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젊은 그룹들을 강제로 차출하다시피 해서 일을 할당하는 식으로 완전히 군대처럼 일을 진행했죠. 막상 해보니 우리 학회 회원들의 능력이 대단하더라구요. 일본 측에서도 굉장히 만족했구요. 그런 경험들이 기초가 되어 어디서 누가 국제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형성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유 : 선생님께서는 회원들간의 화합, 친목을 위해서도 언제나 힘쓰셨습니다. 연일 자정이 넘어서 귀가하실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신 : 우리 학회의 장점이라면 학문적인 업적도 물론 많지만 회원들의 학회에 대한 열정과 집행부에 대한 신임, 회원상호간의 신뢰와 친목 등 성숙한 문화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다른 학회와 달리 큰 잡음 없이 40년을 이어왔습니다.

유 : 학회의 미래 비전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학회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런지요.

신 : 당뇨병학회는 환자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 학회가 당뇨병환자를 위해서 계몽 책자를 낸 것 말고는 크게 한 일이 없어요. 한국당뇨협회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당뇨병학회(ADA)는 당뇨병학회와 당뇨협회가 합쳐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펀드도 좀더 조성해야겠지요.

또 하나는 당뇨병 예방에 좀더 힘을 쏟아 예방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방에 힘을 쏟아야지 치료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보험에서 스틱 등 당뇨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급여화를 해서 당뇨병 치료에 장애요인이 되는 보험 사항을 계속 정부와 협상해 완화시켜야 합니다.

유 : 40주년을 맞아 후학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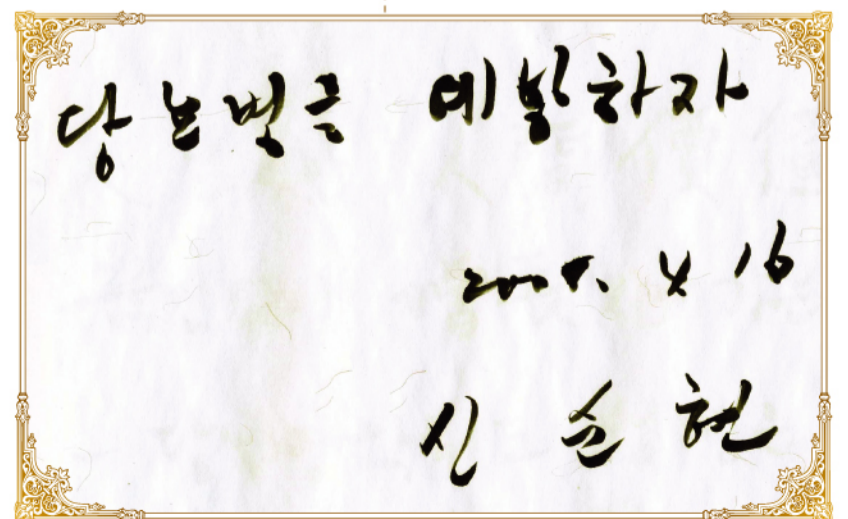
신 : 학문의 길이 다 힘들지만 특히 당뇨병학은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정부 지원도 많지 않구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을 연구하는 이상 당뇨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순현 교수는 회장 재임시절 '2006년 IDF유치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세계적인 안목을 당뇨병학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제1회 당뇨병 연구를 위한 정례 집담회를 시작해 학회의 연구활동 발전의 토대를 닦았다. 학회의 홈페이지도 신순현 교수 회장 재임시절 개통하였고, 당뇨버스도 이때 출범하였다. 또한 성장한 학회를 그에 걸맞는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해 이사장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학회가 당뇨병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제1회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 당뇨병 교육자 관리위원회 설립, 당뇨병 교육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당뇨병교육에 큰 힘을 쏟았다. 「당뇨병 식사관리 지침서」, 「당뇨병학」 개정판, 「당뇨병 용어집」, 「인슐린 요법 지침서」, 「당뇨병의 모든 것」 등의 간행사업을 활발히 벌였고, 당뇨병 교육용 비디오 2판을 기획하였다. 당뇨병학회의 전국화에 힘써 호남지회 창립을 지원했고, 지회 차원의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개최를 후원했다. 제10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을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제1회 서울시 건강주간행사를 서울시, 서울시 의사회와 공동주최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시행된 단계별 당뇨병 관리(SDM) 행사를 기획, 준비했다.

신순현 교수가 학회를 이끌던 1990년대 중·후반 참으로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고 알찬 성과를 낳았다. 그 업적들이 당뇨병학회가 지금과 같이 발전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다.

신순현 15~16대 회장의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 휘호



학회의 대표적인 대국민 홍보사업

40주년 기념우표 기부금 모금 참여 명단 (3차)

총 207명 12,080,000원 (7월 16일 현재)



<제1회 당뇨병주간을 기념하여 열린 좌담회. 김웅진, 민헌기, 최영길, 이상중, 이태희, 허갑범 교수가 참가했다.(조선일보 1992년 11월 9일자)>

당뇨병학회 주최 '제1회 당뇨병주간' 행사가 1992년 11월 8일~14일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에서만 열린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1991년 세계당뇨병연맹(IDF)은 11월 14일을 '세계당뇨병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이 들어있는 주를 당뇨병주간으로 정해 전세계적인 행사를 벌이기로 계획했다. 11월 14일은 인슐린을 발견해 당뇨병 치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프레드릭 밴팅 박사의 생일이다.

나라별로 당뇨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강연회, 당뇨병 검사, 당뇨병환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 치료장비 전시회 등을 하며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치료와 예방 방법을 교육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당뇨병학회도 제1회 당뇨병주간에서 당뇨병 공개강좌, 무료 혈당측정, 좌담회, 신문연재, 전국 대학병원 당뇨교실 차원의 강좌, 상담 등의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

1992년 11월 12일 열린 공개강좌에서는 한국인 당뇨병의 특성, 당뇨병은 정복될 수 있는가, 당뇨병의 운동요법 등을 강의했고, 당뇨병주간을 기념하여 조선일보와 함께 11월 8일 좌담회를 개최했으며 당뇨병의 현황과 조기 발견, 당뇨병의 치료, 합병증, 예방, 미래를 주제로 5번에 걸쳐 당뇨병주간 기간에 신문연재를 하기도 했다.

한편, 학회는 1992년 초 교육위원회를 교육홍보위원회로 변경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하는 등 당뇨병주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2007년 16회에 이르기까지 당뇨병주간은 당뇨병학회의 대표적 대국민홍보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우표-당뇨병환자를 위한 사업기금 조성" 기부금 모금에 동참하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당뇨병환자를 위한 사업에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더욱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6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참여해주신 25명의 명단입니다. 기부금 모금을 시작한 이후 7월 16일까지 총 207명, 12,080,000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이우제 (상계백병원)	김진엽 (강릉병원)
김은실 (경찰병원)	허갑범 (허내과)
김정국 (경북대병원)	김헌진 (을지대병원)
문민경 (보라매병원)	손호상 (대구가톨릭대)
김용기 (부산대병원)	윤지성 (영남대병원)
김인주 (부산대병원)	조정구 (원광대병원)
손석만 (부산대병원)	한수옥 (중앙대병원)
강양호 (부산대병원)	강준구 (한림대성심병원)
이주선 (울산대병원)	이창범 (한양대구리병원)
이재민 (건강관리협회 제주)	최경록 (고려대구로병원)
안유배 (성민센트병원)	이상중 (강남차병원)
최은석 (동산내과)	박순희 (서울위생병원)
유형준 (한강성심병원)	

기념우표 마지막 구입 기회!!

현재 기념우표 재고가 300부 가량 남아있습니다. 필요하신 회원님들께 마지막 남은 분량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가격은 전지 한 장당 1만원입니다. 구입하시려는 매수만큼 입금하신 뒤 기념사업단으로 전화 주시거나 메일 주십시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입금계좌 : 국민 392801-04-067336 (재단법인당뇨병학연구재단)

연락처 : 02) 714-1968 (40주년 기념사업단)

이메일 : kda40th@diabetes.or.kr



행사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로회원 보고회	■											
전담직원 채용	■											
슬로건 선정	■											
엠블럼 제작	■											
기념사업단 현판식		■										
40년사 출판사 선정		■										
원로회원 인터뷰			■	■	■	■	■	■	■	■	■	■
기념신문 발행								■	■	■	■	■
홈페이지 이미지수정				■	■	■	■	■	■	■	■	■
기념우표 제작												■
좌담회 개최							■	■	■	■	■	■
방담회 개최												■
40년사 제작												■
40주년 심포지엄												■
40년사 출판기념식												■
당뇨병주간 준비												■
활동 보고서 작성												■

■ 진행된 사업 ■ 진행할 사업

40주년 기념사업단 연간 일정표

사진으로 보는 당뇨병학회 7080



1976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9차 IDF 대회에 참석한 최영길, 민병석, 김웅진, 이태희, 이상용 교수가 베토벤 동상 앞에서 한 컷 찍었다.



1972년 세계당뇨병연맹(IDF)에 가입한 후 한국에서 처음 참가한 1973년 제8차 IDF 대회(벨기에 브뤼셀). 비 오는 회의장 밖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1980년 나고야에서 열린 일본당뇨병학회 회의장 앞. 이 대회에서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을 열기로 양국 대표들이 의기투합하여, 다음해 10월 31일 서울에서 제1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1988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3차 IDF 대회는 당뇨병학회가 처음으로 단체 참가한 대회이다. 35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1988년 9월 9일 파리에서 열린 제2차 한불당뇨병심포지엄. 양국 회장이 선물 교환하는 장면이다. 한불당뇨병심포지엄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으나 단 2회로 끝이 아쉬움을 많이 남겼다.



1989년 제5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 서울을 벗어나 처음 열린 대회로, 제주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